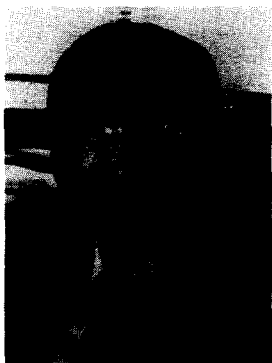


94년의 경제전망과 기업인의 자세



정 갑 영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경제의 구조조정

우리 경제는 지난 90년부터 심각한 구조조정을 겪고 있다. 구조조정은 경제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이다. 변화하는 여건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체질을 형성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 과정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만이 다음 단계로의 성장이 가능한 것이다. 여건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은 안일한 정책을 되풀이 하는 기업이나 경제는 다음 단계로의 발전이 불가능하다.

실제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여건은 지난 수년동안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국내에서는 민주화의 열풍으로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노동운동이 일시에 폭발하여 새로운 노사관계가 형성되었고 임금수준도 크게 높아졌다. 우리는 이제 양질의 노동력을 값싼 임금으로 고용하던 시대에서 벗어나고 있다. 오히려 우리보다 소득이 높은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보다도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 처해있다. 수입으로부터 엄격하게 보호되던 국내시장도 이제는 개방되었다. 불과 2~3년 사이에 수입개방화의 폭이 선진국 수준에 버금가고 있다.

문민정부의 등장과 함께 경제정의 실현하려는 정책들도 획기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실명제의 도입으로 정경유착의 고리는 물론 모든 거래에서 경제정의를 달성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고 있다.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정부규제를 완화시키려는 새로운 정책도 도입되고 있다.

우리나라 밖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획기적이다. 60~70년대와 달리 각국의 보호정책이 강화되고 있고, 지역간 블록화의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공동체(EC)의 등장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결성도 모두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사회주의체제가 몰락하여 정치이념에 대한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고, 이제는 모든 국가가 경제적 실리추구를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 目 次 ■

1. 경제의 구조조정
2. 경제의 점진적 회복
3. 선진화를 위한 기업인의 과제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여건 변화속에서 과연 우리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기업도 가계도 그리고 정부도 종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새로운 현실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전략에 부심하고 있다. 기업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국제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개방화와 국제화를 수용하며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에 골몰하고 있다. 모든 경제주체가 새로운 여건에 적응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이것은 바로 구조조정과정이며,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가름하게 될 가장 중요한 관건이 바로 여기에 있다.

2. 경제의 점진적 회복

구조조정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정부의 의욕적인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격적인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민정부의 개혁정책으로 사회 각 부문이 큰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아직 불황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구조적인 조정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는 본래 불확실한 사회속에서는 성장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 사정과 개혁, 금융실명제 등의 개혁 조치속에서 기업이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관료나 소비자도 불확실한 여건속에서 경제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현상이 구조 조정기에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93년은 80년대 이후 가장 낮은 경제성장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3년의 경제성장율은 약 4%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신정부의 개혁정책에 많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 경제정책도 당장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국민정서는 경제정의를 회복시키는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에 수긍하고 있다. 국민들이 개혁정책

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큰 것이다. 일부에서는 개혁의 성공여부가 결국 경제성장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 정치적 현상이 단기적인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결국 경제성장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그러나 94년의 우리 경제는 다행히 올해보다는 나아질 전망이다. 국내적으로 그동안 경제활동을 위축시켰던 개혁조치들이 마무리되고 있으며, 금융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실명제가 점차 정착되고 있다. 금리자유화와 정부의 규제완화, 국제화전략 등도 점차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적인 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권 경제가 올해보다는 높은 성장을 실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기구들의 예측에 따르면 선진권 경제의 성장율은 93년의 1.2%에서 94년에는 2.6%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도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성장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경제가 94년을 계기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제도면에서도 밝은 측면을 기대할 수 있다. 세계의 자유무역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무역협상이 장기간 정체되었으나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비롯한 지역간의 블록화 경향은 종전보다 쇠퇴해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내년의 우리 경제는 올해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환경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로 내년의 성장은 6%내외로 올해보다 높은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는 선진권의 본격적인 성장과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도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이 개선된다고 해서 결코 우리 경제의 성장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

경제환경은 어느 나라에도 주어지는 공통분모인 셈이며 이것이 결코 우리 경제에만 호의적으로 작용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한국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변화들도 많이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부상은 우리 경제에 많은 부담과 기회를 동시에 가져오고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중국이 개방된 이후 선진국에서 우리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산업에서 더 이상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게 되었다. 중국 뿐만아니라 동남아시아 후발국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반면 동아시아 국가의 고도성장은 우리경제의 활력소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의 성장과 함께 아시아 경제권은 이제 21세기를 지배할 최대의 경제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도 아시아 태평양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는 것이다.

3. 선진화를 위한 기업인의 과제

우리 경제가 새로운 경제여건에 적응하고, 다가오는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것은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또는 문민정부의 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과제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경제의 선진화가 그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첫째,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 이제 정부의 보호와 지원이 없는 가운데 시장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업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개방화된 사회에서 종래와 같은 보호와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미 국내시장에서도 수입품과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금리자유화로 위험 부담이 큰 기업은 이제 금융비용도 많아지게 되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장하는 기업을 연구해 보면 몇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성공하는 기업은 항상 부단한 연구개발과 기업가의 혁신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정신, 높은 종업원의 만족도, 원만한 노사관계, 고부가가치의 창출 등이다. 최근에는 정보화와 국제화에 적응하는 능력도 성공요인으로 지적된다.

기업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며,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개방화와 국제화의 추세속에서 외국제품의 수입이 금지되고, 국내시장의 경쟁이 제한되는 기업환경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수입시장이 개방될 뿐만아니라 국내기업간에도 치열한 경쟁과정을 통해서 성장할 수 밖에는 없다. 오직 높은 생산성과 부가가치, 그리고 기술혁신을 이룩할 수 있는 기업만이 시장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다.

둘째,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제 정부도 달라져야 한다. 국제화와 개방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없이 구태의연하게 기업에 대한 규제만을 강조하는 정부는 이제 변화되어야 한다. 산업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회복시키는 과감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고위층의 정책의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관료의 의식이 시급히 변화되어야 한다. 공장설립에서부터, 수출입의 통관, 세무행정, 금융 서비스, 교육부문 등 모든 정부부문의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변화해야만 한다.

셋째, 국민의 의식도 선진화되어야 한다. 획일화된 군사문화의 유산에서 벗어나 시장경쟁으로 형성된 다양한 거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의식이 정착되어야 한다. 국경없는 기업이 지배하는 지구촌에서 폐쇄적인 의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 아시아에서 한국처럼 외국인 투자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평가하는 나라가 없다는 지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가?

경제는 항상 오케스트라와 같은 것이다.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주체가 진실로 경제를 일으킬 의지가 있을 경우에만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 예를들어, 모든 국민이 경제가 불안하고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물가는 더욱 상승하기만 한다. 경제주체의 기대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는 모든 경제주체가 협조하지 않고서는 좋은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 경제는 한국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성장의 사이클을 달리고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선진권으로의 도약을 가시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그러나 이의 실현 여부는 모든 경제주체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특히 생산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인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

飲後思味，則濃淡之境都消，色後思姪，則男女之見盡絕。故人常以事後之海悟，破臨事之癡迷，則性定而動無不正。

배불리 먹은 후에 맛을 생각하면 맛있고 맛 없음의 구별이 모두 사라지고, 성욕을 만족시킨 후에 정욕을 생각하면 남녀의 관념이 모두 끊어진다. 그러므로, 사람이 항상 일이 끝난뒤의 후회로써 일을 시작할 때의 어리석음을 깨뜨린다면, 본성이 확고해서 행동에 그르침이 없을 것이다.